문학계 변화로 넓어진 문예지 그릇

잇따른 창간과 기존 문예지의 변신 … 문화비평까지 아우르기도

최근 문예지들이 잇따라 창간하거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대중문화의 약진과 문학 자체의 새로운 모색을 담기 위한 움직임이 문학 계간지의 지형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가 만드는 문화무크지《이다》, 지난 겨울에 창간, 3호까지 발행한《내일을 여는 작가》(현암사, 이하 작가), 시 전문 계간지《시와 사람》(시와사람사),《공간시대문학》(공간시대문학사) 등의 창간은 이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양한 표현 가능성 담아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학과지성사의《이다》. 창작과비평사와 함께 70·80년대 문학지형에 양대산맥을 이루어온 문학출판사로서 외도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질 혼재성과 다양성'의 머리글자를 딴 이 책은 새로운 매체가 열어준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통해 장르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그간 문예지들이 다 말하지 못한 것을 다양한 문화비평을 통해 담되, 그 방법은 비판적이고 꼼꼼한 문학비평을 모델로 한다. 문학으로 가는 길에 다른 문화담론을 이용하겠다는 것. 아직 창간되지 않았지만, 미학사(대표 박은주)가 준비하고 있는《네오》역시《이다》와 비슷한 성격의 문화 무크지가 될 전망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송기숙)가 책임편집을 맡고 있는《작가》와 96년 여름 나란히 창간된 시 전문 계간지《시와 사람》《공간시대문학》은 앞서의 계간지와는 다른 이유로 등장했다. 세 책의 공통점은 기존의 문학계간지가 빠져 있는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가장 문학다운 문학을 꿈꾼다는 점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리얼리즘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참여문학계열 문학작품의 발표공간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창간한《작가》는 창간호 권두평론〈세계현실의 변동과 한국문학〉(구중서)에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나아가 리얼리즘론 전체와 민족문학론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여전히 리얼리즘은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며 "70년대 우리나라의 리얼리즘론은 서구의 19세기 리얼리즘론을 따른 것이기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우리의 비극적인 현대사로 인해 빚어진 감정적인 충동일 뿐, 공식적이고 지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밝힌다.

기존 문예지들도 운영체제 등 변화

《작가》는 '잘 나가던' 시절의 참여문학계열의 계간지들이 가졌던 '진지한 문학'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이어가되, 폐쇄성은 버리고 문학 전체가 한데 어우러져 풍요로운 문학을 일구어간다는 데 의미를 두어 전체적으로 평론과 소설, 시를 비슷한 비율로 배분한다.

《시와 사람》역시 순수문학의 '해방'을 꿈꾼다. 이들이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하나는 중앙문단에서가 아닌 지방에서 발간되는 문예지라는 선입견, 둘째는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광주라는 지역의 과거이고, 마지막 하나는 후기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의 여러가지 병리적 징후들이다.

근래 급격하게 이루어진 기존 문학계간지들의 변화 역시 예사롭지 않다. 소위 '과격한' 참여문학의 산실이었던《실천문학》이 편집위원 체제에서 편집동인 체제로 바꾸면서 서강목·김재용·방민호 등 30대의 젊은 평론가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사실은 이같은 변화를 실감케 한다. 형식·내용은 물론 제호나 발간주기까지 바꿀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진을 싣지 않던《문학과 사회》는 사진을 싣는 파격을 이뤘고,《세계의 문학》은 '오늘의 작가상 20주년 역대 수상자 신작시리즈'를 싣는 가을호를 끝으로 그간 민족주의와 리얼리즘에 밀려 포기했던 외국문학의 소개와 비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72년 창간된 문학월간지《문학정신》역시 겨울호부터는 황병하·문흥술·신철하 등 젊은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실험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단행하겠다는 변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학계간지 지형도의 변화는 문학이나 문학 외부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90년대 들어 젊은 세대의 감성, 대중문화를 포함한 다른 문화영역의 급성장, 출판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작가와의 전면경쟁 등이 문학계 내부에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주 기자

철학적 인간학

G. 해프너 지음/김의수 옮김/256면/8,500원

철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철학적 인간학" 입문서. 인간 현존재의 기초 차원들로 언어성, 사회성, 역사성 등을 제시하고, 인간 존재에 고유한 현상으로서의 의식과 의지의 자유를 집중 조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J.O. 엄슨 지음/장영란 옮김/224면/9,500원/양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입문서로 적합한 이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그의 이론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문시영 지음/200면/6,5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1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의 윤리학적 근본 문제를 행복의 추구로 상정하고 덕과 악을 행복론적 전제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행복의 문제를 철학적 반성을 통한 윤리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해준다.

해석학과 비판적 사회 과학

이구슬 지음/208면/7,0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0

가다머의 해석학과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과학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둘 사이의 해석학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 "심층 해석학" 또는 "비판적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해석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